

수출투자책임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3.13)

- 지금부터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지난 주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폐쇄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.
 -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·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고, 오늘 아침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예금 전액 보호조치 발표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나,
 -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, 시장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-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고인플레이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.
 - 우리 경제·금융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,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
[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]

- 최근 수출은 반도체 등 주요 IT 품목과 對中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,
 - 조금전 발표된 3.1~10일간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.2%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
- * 수출전년동기비 %: ('22.8) 6.5 (9) 2.3 (10)△5.8 (11)△14.2 (12)△9.7 ('23.1)△16.6 (2)△7.5 (3.1~10)△16.2
- 이에,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이 빠른 시일내에 반등하여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

- 부처별 1급으로 구성된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,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□ 우선,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주요 품목별 현장애로 해소와 추가 지원방안입니다.

- ① 먼저,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증가에 대응하여 산은·수은 금융지원 확대, 무보 선수금환급보증(RG) 특례보증비율(現 70~85%) 상향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구체적인 조선업계 정책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하겠습니다.

* 선박 발주시 발주사는 선박인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통상 조선사에 선수금(선박가격의 약 40%)에 대한 환급보증(RG; Refund Guarantee) 요구

- ② 또한, 미래차 분야 투자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·원천기술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,

- 최근 수출용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선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.

- ③ 한편, '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'를 신설하여 디지털정부 솔루션 수출을 지원하고, ICT 수요가 높은 국가(중동, 동남아 등)에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도 파견*하겠습니다.

* 수출분야 협력의제에 대한 수출 로드쇼 개최, 장차관급 양자면담 등 실시('23년 2회)

- ④ 아울러,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*하는 한편,

* 특별지원한도(책정한도 1.5배) 제공, 보험료 20% 할인, 최대 100% 부보율 적용 등

- ⑤ 환경 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*도 2분기 중 발표하겠습니다.

* 녹색산업 얼라이언스('23.1월 출범) 등 민관소통 확대,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한 G2G 협력 강화, 녹색채권 발행·융자 지원 등 재원조달 방안 등 포함

□ 다음은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① 우선, 중소·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0.6%p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(산은)을 이달 중 신설·공급하여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.5조원*까지 확대하겠습니다.

* 무보 260조원, 수은 82조원, 신보 14조원, 기보 3.3조원, 중진공 0.4조원, 산·기은 4조원(당초 2조원), aT공사 0.5조원 등

- 또한, 무역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내달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출기업들의 무역금융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.

- ② 또한, 수출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원스톱 '해외인증 지원단'을 신설하여 정보제공,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,

- ③ 해외전시회의 경우, 참가기업 모집과 선정 과정에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확대하겠습니다.

- ④ 아울러, 원산지 증명서 일반심사·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시 알 수 있도록 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.

□ 수출은 위기돌파의 핵심 동력입니다.

- 정부는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들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의 수출여건을 연중 상시 점검하는 한편,

-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·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.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